

영광에 '미래차 전자기파' 검·인증센터 들어선다

대마전기차산단에 200억원 투입...2023년 준공 e-모빌리티 등 전자기파 인증 중심지 도약 기대

영광군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무선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각종 기계장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가 들어선다.

영광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미래차 전자기파 적합성(EMX) 인증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첨단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전자기파 적합성 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지 내에 3327㎡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인증 평가 장비를 갖추게 된다.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은 최근 전기차 대중화와 복잡한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하는 미래차 트렌드 변화로 인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간 국내 인증기관 부재로 중국, 유럽 등 해외 인증기관에 의존해야만 했다.

영광군은 센터가 구축되면 인증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국내 미래차 산업

분야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소형부터 대형 건설기계까지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설비와 국내 유일의 400V 이상 고전압·고전류 차량 부품을 인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면 관련 산업분야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전국 유일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 전문 지원기관 구축을 통해 유관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해 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연구센터 건립사업에 이어 전자기파 인증센터 구축사업까지 추가 선정돼 영광 중심의 e-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산단단지에 오는 2023년 들어설 예정인 '미래차 전자기파 인증센터' 조감도. (이미지=영광군 제공)

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e-모빌리티 산업 거점 지역으로서

의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금정 대봉감 60% 이상 피해 예상

영암군의 특산물인 대봉감이 금년에도 피해가 심각하다.

금정면은 금년 1월 동해와 4월 14, 15일 서리피해를 입은 대봉감에 대해 지난 4월 29일 피해조사를 했다.

금정면은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농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인 지역 손해평가인 11인의 도움을 받아 전 직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함께 피해조사 방법을 교육한 후 바로 현장 조사 했다.

대봉감은 재해피해가 없을 경우 감이 열려야 하는 감나무의 결과지에 감꽃이 보통 80~90%는 있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지난 겨울 동해로 잎이 거의 없는 나무도 있었고, 서리 피해로 감이 열려야 하는 결과지에 감꽃이 지지대는 10%가 안 되는 곳도 있고 평균 30~40%밖에 없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감꽃 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서리 피해로 정상과일이 되지 못하는 감꽃을 구별하지 못하고 감나무 잎만 보고 피해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다도 적게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율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손해평가인들이 봐서 피해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율을 올려주도록 했다.

주민들은 이번 피해조사는 주민을 배려한 조사를 한다며 본인이 몰라서 손해를 볼 뻔했는데 전문가분들이 주민 입장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셔서 다행이라며 감사하다고 했다.

금정면 손해평가인 11인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무보수로 재능기부를 했다.

피해현장을 방문한 이영주 금정면장은 피해상황을 직접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피해농가를 위로하며, 영암군에서 이 같은 서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도와 정부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주 금정면장은 피해조사 교육에서 "대봉감이 몇 년 간 피해가 큰 것이 정말 안타깝다. 피해율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도 피해를 입어 시름에 빠진 우리 민원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직원들과 조사하는 분들에게 특히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도록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내버스업체, 경영 악화로 휴업 신청

목포시, 정상화 방안 등 향후 대책 마련 예정

목포 시내버스업체(태원여객·유진운수)가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1년간) 휴업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버스업체는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임금인상,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급감, 작년 기준 약 43억원의 손실 발생 등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휴업을 신청했다.

목포시는 시민의 교통권 보호를 위해 시의회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방안 등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기자

목포시내버스 1년 휴업 신청에 비난 '붓물'

"어이없는 갑질, 보조금 타기 위한 꼼수" 등 비난

목포시내버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1년 휴업을 신청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최근 목포시에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명칭은 다르지만 한 회사다. 목포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사실상 수십년간 독점해 온 기업이다.

또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몇 남지 않은 토착기업이다. 대표는 최근 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목포시내버스가 휴업에 들어갈 경우 목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내버스가 없는 도시가 될 위기에 처했다.

시내버스의 공익성은 물론 지역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마저 저버린 결정에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그 동안 지역에 대한 기여

도에도 불구하고 SNS에서는 "어이없는 갑질", "있을 수 없는 일", "천박한 자본가의 전횡", "악독한 토호-자본",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 등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2월에도 기습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목포시가 임금인상에 따른 소요액 13억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정상화했다.

또 전남도와 목포시는 적자노선 보전 비용 명목으로 매년 20억~30억원, 저상버스 도입 등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60여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사업 실시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인가구 월소득 231만원 이하 / 4인가구 월소득 365만원 이하), 재산기준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며

지금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안=이가성기자

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 김산지가공시설 준공식

신안군은 4월 29일 압해읍에 위치한 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 김산지가공시설 준공식에서 김산지가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신안바다영어조합법인은 2006년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마을에 설립된 김 가공업체로 신안군의 김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9년 신안군으로부터 마른김 건조기계, 히트펌프 시설비 등 8억원을 지원받아 2021년 산지가공시설을 완료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은 국내 최고 김 수출 기업이 있는 곳으로 신안 김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수출 김 유통단지를 압해읍 송공리에 조성하여 신안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기자

함평군, 조사료 생산농가 보조금 선(先)지급

함평군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사료 생산농가(단체)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silage, 담근먹이) 제조운송비 보조금 31억 원 중 14억 원을 선(先)지급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선금 지급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

업 지원과 신속집행 활용지침에 따라 농가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함평군이 가축 사육에 있어 필수인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021년 주택용태양광 3kW

전기를 쓰고 있는 내집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셨습니까?

정부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어디든지 설치 가능

평생 전기요금 절감

2020년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2021년도 지원금액 4월 공고 예정)

Solar Solution
SUNTEAM 주식회사 썬팀
SUNTEAM Corp.

상담 | 접수 010-4517-1093

매년 당해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진행
전국 | 접수 | 방문 | 상담 | 설치하고 관리해드립니다

- ① 지붕에 붙여서 설치하는 지붕형
- ② 옥상 위에 설치하는 슬라브형
- ③ 마당 빈공간에 설치하는 마당형
- ④ 주차장 옹도로 설치 주차장형
- ⑤ 현관앞 햇빛가림막 비가림막 차양형

지붕, 옥상은 물론 마당 등 우리집 어디든
낮시간에 그늘만 안지면, 우리집도 태양광 설치 가능

태양광3kW 설치후 전기요금절감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설치후요금	연간절감액
350 kW	55,080원	→ 1,130원	647,400원
450 kW	88,130원	→ 6,020원	985,320원
500 kW	104,140원	→ 11,320원	1,113,840원
550 kW	120,090원	→ 16,640원	1,241,400원
600 kW	136,040원	→ 31,570원	1,253,640원
650 kW	151,990원	→ 42,250원	1,316,880원
750 kW	183,900원	→ 63,620원	1,443,360원

* 위 전기요금은 2021년 실제 사용량을 참고한 예시금액